



전주기전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 2위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총장 조희천)는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 분야에 김현도, 김시현, 송조희, 김근영(지도교수)가 출전해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응급구조과 구급분야 특별 경연은 올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새롭게 신설된 종목으로, 전국 응급구조과 21개 팀이 출전해 심정지 상황 응급처치 시뮬레이션 예선 및 본선 경연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도 학생은 “학교에서 전공동아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공여탕과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교수님들의 전폭적 지원과 전북소방본부와 덕진소방서에서 많은 도움을 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근영 교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매일 밤낮 연습한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에 특화된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본격적인 승마도시 위상 높인다’

장수군서 제5회 경기도 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 성료… 4개 종목 23경기 · 500여명 출전

장수군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장수국제 승마장에서 경기도승마협회(회장 김의종) 주최로 열린 제5회 경기도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마장미술, 장애물, 권승경기, 허들경기 등 4개 종목 23경기로 치

러진 이번 대회에는 일반인 유소년 등 약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대회 결과 마장미술 S-1클래스 챔피언전 이석, 장애물 120클래스 챔피언전 김성현, 장애물 130클래스 챔피언전 이요셉, 장애물 그랑프리 이기주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축대회 대표선수 선발전



특히 이번 대회가 치러진 ‘장수국제승마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수한 시설을 갖춘 실내승마장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승마경기 개최가 사계절 가능한 최적의 장소이다. 연중 많은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전국의 승마선수와 말

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찾고 있다.

이근동 축산부장은 “이번 승마대회 개최로 2,000여 명의 선수와 방문객이 군을 방문해 생활인구 증가와 2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 말산업특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편호기자



호원대 씨름부, 국제교류·홍보 씨름 시범단 파견

호원대학교 온형준 씨름부 감독이 연변 국제 민족식 씨름 경기, 국제초청경기 대회 시범 공연단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11일 전했다.

온 감독과 함께 호원대 씨름부 강예호(1년), 이상복(2년) 선수도 함께 선발돼 시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연변민족식씨름경기 및 국제초청경기’는 13~16일 4일간 중국 연변 민족체육훈련관·연변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참가 국가는 총 6개국으로 대한민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확정이며, 동남아 국가는 조정 진행중이다.

온형준 감독은 “스포츠무도학과 교수) 2024 연변민족식 씨름경기에 참가해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씨름을 세계적인 한류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시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에 대비, 건강 취약계층 7,3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방문 건강 집중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업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방문 전담인력 50명으로 구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밀하게 살피고 홀로 어르신 2,500여명에게는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대상자의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관리와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최소화하고 무더위 쉼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홍보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체크와 냉방기 작동 여부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고 쿨토시, 쿨타운 등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전화와 AI-IG 기술을 활용해 건강수칙 메시지 전송 및 위급상황 시 응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각적인 방법으로 건강 취약



계층을 지키는 방침이다.

최민자 치매안심과장은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폭염대비 건강수칙 안내와 무더위 쉼터 홍보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출산 준비 교실 참여 임산부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두근두근! 출산 준비 교실에 참여할 임산부를 모집한다.

이번 교실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 등에 대한 올바른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복돋아 주고, 임산부 심신 안정에 기여하고자 △꽃꽂이, 리탄 수유등 만들기의 내용으로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평일반은 오는 19일과 24, 주말반은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으로 7월 20일과 27일로 신청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1 ~ 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진로설비상담센터(센터장 노명숙)는 11일 전주시건강가정센터(센터장 유현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가족, 위기가족 일굴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협력체계구축 △대학생 생애주기별 상담 · 치료연계 · 교육체계 구축 △대학생 심리건강증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현숙 센터장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노명숙 센터장은 “대학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비 부모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부모교육, 이성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소방서, 장수의용소방대 연합회 고문 위촉식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1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현신 봉사하다가 퇴임한 역대 연합회장 2명을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고문 위촉자로는 의용소방대장 재임기간 소방발전에 공헌한 전) 장수의용소방대장상연합회장 김재문(전) 장수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장 형정이이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두분을 장수의용소방대연합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장수소방서의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장수=고편호기자



무주읍 ‘남산회’, 장학금 170여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10일 무주읍 ‘남산회’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78만 26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회장은 “회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무주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남산회는 무주를 기관화단체장 출신들이 무주군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은 “언제나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 솔선해 주시는 남산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성성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탄소중립 자원 모으기 운동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는 11일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매년 전인군 11개 읍·면에서 수집된 현 옷, 신발 가방, 이불 등을 모아 판매해 장학금 전달과 어려운 이웃을 돋는는데 사용하는 것을 기리킨다.

이는 벼룩장 옷을 누군가 다시 입고 사용됨으로 인해 새로 옷을 만들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의 의미도 크다.

김문옥 지회장은 “비싼 신 가문에도 불구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3N0청결운동, 나무심기 등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김제시 교월동 동성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11일 김제동성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성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전통을 이어 오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다. 특히, 해마다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을 모아 기탁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귀감이 되고 있다.

정남수 목사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실천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우규 교월동장은 “나눔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교월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자에게 따라 관내 저소득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